

20세기 초 외국인의 눈에 비친 금강산

정치영(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은둔의 왕국'라는 표현이 있듯이 19세기 전반까지 한국은 특히 서양세계에 있어 미지의 세계였다.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와 개항에 의해 한국 땅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적지 않은 이들이 한국체험을 글로 남겼다.

지리학에서는 여행의 결과인 기행문을 연구 자료로 활용해 왔다. 지리학에서의 여행기록의 이용방법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여행기록을 객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여행기록에서 특정시대와 지역의 지리적 사실을 추출하여 지역지리를 구성하는 소재로 이용한다. 다른 하나는 여행기록을 주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여행기록을 통해 사람들이 장소와 경관에 대해 가지는 감정, 태도, 가치 등에 관한 지식을 획득한다.

서양의 학계에서는 특히 후자의 연구가 활발하여, 서양인이 쓴 동양이나 아프리카 여행기를 서양인들의 식민주의 담론을 분석해 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텍스트로 주목해 왔다.¹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 쓴 한국 여행기가 타자의 시선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² 이와 같이 지역 주

¹ 아래와 같은 연구들이 있다.

Duncan, J. and Gregory, D.(ed.), *Writes of Passage: Reading travel writing* (London: Routledge, 1999).

Hulme, P. and Youngs, T.(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Travel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2).

Guelke, L. and Guelke, J. K., 2004, "Imperial eyes on South Africa: reassessing travel narratives,"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0: 11-31.

²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왕한석, 「개항기 서양인이 본 한국문화-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 1998, 3-33.

박지향,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이자벨라 버드 비숍과 조지 커즌의 동아시아

민이 아닌 외국인에 의해 작성된 여행기록은 타자의 시선에서 그들이 여행한 국가나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활동하던 캐나다 선교사인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이 1917년 금강산을 여행하고 남긴 기행문인 <The Diamond Mountains>과 일본의 언론인인 기쿠치 유희(菊池幽芳, 1870~1947)가 같은 해 금강산을 여행한 기록인 <朝鮮金剛山探勝記>를 자료로, 이들이 금강산을 어떻게 여행하였고 여행한 뒤 금강산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고찰한다.

주지하다시피 금강산은 오랫동안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한국 최고의 명승지로 인식해 왔으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금강산을 경험한 이들은 시, 遊山記, 그림 등 다양한 작품을 남겼고, 이러한 작품들은 한국인들이 금강산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의 금강산에 대한 인식은 崔南善(1890~1957)이 잘 정리하였다. 그는 「金剛禮讚」에서 “금강산은 조선인에게 있어 風景佳麗한 地文的 일 현상일 뿐 아닙니다. 실상 朝鮮心の 物的 表象, 朝鮮精神의 구체적 표상으로 朝鮮人の 생활 · 문화 내지 역사에 長久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聖的 일 존재입니다.”라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금강산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이 아닌 타자의 시선에 비친 금강산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일과 기쿠치의 여행이 기존 한국인의 금강산 여행과 그 동기와 방법, 구체적인 여정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두 사람 개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도 다루었다.

2. 금강산과 조선시대까지의 금강산 여행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군과 고성군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동해를 따라 뻗어 있는 한반도

여행기], 안과 박 10, 2001, 295-320.

박양신, 「19세기 말 일본의 조선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상」, 역사학보 177, 2003, 105-130.

윤소영, 「러일전쟁 전후 일본인의 조선여행기록물에 보이는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2007, 49-93.

김상민, 개화 · 일제기 한국 관련 서양 문헌에 나타난 한국 인식 양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³ 崔南善, 「金剛禮讚」 六堂崔南善全集 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편, 현암사, 1973, 161.

의 등줄기, 백두대간에 속한 산이다. 이 산의 최고봉은 해발고도 1,638m인 비로봉이며, 산의 폭은 동서로 40km, 남북으로 60km에 달하고, 면적은 약 530km²이다. 예로부터 금강산은 지리산, 한라산과 함께 신선이 산다는 三神山의 하나로 꼽혔으며, 조선시대에는 북쪽의 백두산, 남쪽의 지리산, 중앙의 삼각산, 서쪽의 묘향산과 더불어 五嶽의 하나인 동쪽을 대표하는 산으로, 국가제사의 대상이었다.

금강산은 크게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내금강은 비로봉, 일출봉, 차일봉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을 경계로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흔히 내금강은 그 경치가 우아하고 여성적인데 비해, 외금강은 웅건하고 남성적이라고 한다. 한편 해금강은 금강산과 동해가 만나는 해안지역을 말하며, 바다와 석호, 그리고 기암이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금강산에는 이른바 10가지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山巔美, 溪谷美, 樹林美, 建築彫刻美, 海岸美, 風雲造化美, 色彩美, 展望美, 湖水美, 傳說美 등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어우러져 있는 명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산악미는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금강산이 수많은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표현이다. 1,500m가 넘는 봉우리만도 10여 개, 1,000m가 넘는 봉우리는 100여 개를 헤아린다. 이 많은 봉우리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화강암이 주를 이루는 금강산의 지질 때문이다. 봉우리 사이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많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골짜기 곳곳에는 물의 힘으로 폭포, 沼와 潭이 만들어져 있으며, 이것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희고 깨끗한 돌과 물을 사랑하는 만폭동, 백천동, 영원동, 옥류동 등의 계곡과 구룡폭포, 비봉폭포 등의 폭포가 대표적인 명소이다.

조선후기의 학자 李重煥은 東國山水錄 에서 國中大名山이라 하여 전국에 12곳의 명산을 지정하고, 그중에서도 금강산을 第一名山이라고 명시하였다. 금강산이 제일명산이 된 것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역사가 담긴 전설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산 이곳저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전설은 아마 麻衣太子의 고사일 것이며, 문화유산으로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불교 관련 문화재이다. 금강산에는 삼국시대부터 세워진 많은 사찰이 존재하였다. 16세기 중반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 에는 이 산에 100여 개의 사찰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금강산 4대 사찰이라 불리는 유점사, 신계사, 장안사, 표훈사 외에 정양사, 보덕암, 마하연, 도솔암 등이 유명하였다.

이러한 금강산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이었다. 중국인들 사이에 “원하건대 고

* 유홍준 편, 금강산, 학교재, 1998, 11.

려에서 태어나 금강산을 직접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중국에까지 알려져 금강산 구경을 소원하는 중국인이 많았다고 한다. 예로부터 한국인들도 금강산 구경을 소원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 뿐 아니라 곳곳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답사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인과 예술가, 그리고 관리와 학자들이 금강산을 여행하였다. 이들은 금강산의 경치와 문화유산을 시로 노래하고 글로 기록하며, 그림으로 그려 남겼다.

이와 같이 금강산 여행은 경치 감상과 문화유산 답사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시기에 따라 금강산 여행이 지닌 의미에 약간씩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고려시대 금강산 여행은 불교적 성지 순례의 의미가 있었으며, 고려 말 신진사대부와 조선의 사대부들에게는 심신 수양과 공부의 수단이 되었다. 즉 산에 오르며 浩然之氣를 기르고자 했으며, 산과 물을 중요한 텍스트로 삼아 자연의 운행질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을 함양하는 觀物察己를 시도한 것이다.⁵ 17세기말에서 18세기에 이르면, 興과 快를 추구하며 산수를 품평하는 문인그룹이 등장하면서 금강산은 풍류의 공간이 되었다. 또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는 여성들이 금강산 유람이라는 소망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즉 후대로 올수록, 금강산 유람은 세속화되고 저변이 넓어져 남녀는 물론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의 문화적 욕구가 되었다.⁶

조선시대 금강산 여행은 보통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간 여행이었다. 이 때문에 여행에 앞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였다. 먼저 앞서 여행한 사람들의 여행기를 구해 읽으며 여정을 정하고 여행 준비를 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장거리 여행을 위해 돈과 식량은 물론이고, 침구와 의류, 식기와 취사도구 등이 준비되었고, 문방구와 책은 사대부들의 유람에 필수품이었다. 식량은 쌀과 반찬, 술, 과일 등을 준비하였다. 의류와 침구류로는 갈아입을 옷과 신발, 이부자리, 바닥에 깔 자리를 준비하였다. 사대부들은 편지나 시를 쓰거나 여행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문방구를 반드시 휴대하였다.⁷

조선시대 사람들은 혼자서 금강산 여행에 나서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가족과 친지와 함께 유람 길에 오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대개는 5~10명 정도로 여행단을 꾸렸으며, 사대부들의 여행에는 노복이 동반하였다. 노복은 말을 끌거나 짐을 지고 취사를 하는 등 유람에 필요한 일을 도맡아 하였다. 이들 외에도 樂工과 畵工이 동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악공은 피리, 거문고 등의 연주자들로 유람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였으며, 동반한 화공이 명승지

⁵ 정치영,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54-55.

⁶ 민윤숙, 「 금강산 유람의 통시적 고찰을 위한 시론- 불교적 성지순례, '수양'에서 '구경' 혹은 '관광'에 이르기까지 », 민속학연구 27, 2010, 130-141.

⁷ 정치영, 앞의 책, 84-101.

의 경치를 그림으로 옮겼다. 또 다른 중요한 동반자로 승려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산에서 유람의 안내자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고 가마를 메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⁸

조선시대 여행자들은 대체로 도보 여행을 하였으나, 사대부들이 금강산을 오고가는 길에는 대개 말을 이용하였다. 여행에 말을 이용하면, 도보에 비해 훨씬 힘이 덜 들고 따라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산에서의 교통수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조선전기에는 험한 산길에서 말을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도보로 유람을 하였다. 16세기 이후에는 사대부들의 경우, 금강산에서 가마의 일종인 藍輿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금강산 여행에 나선 사람들은 대체로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이용하였다. 서울에서 출발한 유람객들은 대부분 조선시대 6大路 중 제2로인 慶興路를 이용하였다. 이 길은 서울에서 금강산 입구까지를 거의 직선으로 이어주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조선시대 금강산 여행은 교통수단 등의 여행 여건 때문에 서울에서 출발하면, 30~40일, 금강산 인근의 강원도에서 출발한 사람들도 15~20일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금강산 여행에는 숙박이 따르게 된다. 금강산을 오가는 길에는 친지의 집이나 관아, 역과 원, 주막, 사찰 등에서 숙박을 하였고, 금강산 내에서는 모두 사찰에서 숙박을 하였다.⁹

3. 계일과 『The Diamond Mountains』, 기쿠치 유히와 朝鮮金剛山探勝記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금강산 기행문은 『The Diamond Mountains』와 朝鮮金剛山探勝記 이다. 『The Diamond Mountains』는 1922년에 간행된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¹⁰ 13호에 실려 있으며, 모두 67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11쪽에 달하는데, 금강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먼저 금강산의 수리적, 지리적 위치를 적고, 계절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금강산의 명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금강산을 한국의 다른 산과 비교한 내용을 한국의 한 고문헌에서 발췌하여 소개하였다. 그 다음에는 權近, 李滉, 李珣 등이 쓴 글을 인용하며, 조

⁸ 정치영, 앞의 책, 104-108.

⁹ 정치영,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문화역사지리* 15(3), 2003, 29-30.

¹⁰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는 1900년 창설된 영국왕립아세아학회(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한국지부의 기관지이다.

선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금강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내금강의 백천동을 비롯하여 금강산의 주요 명소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명칭 유래를 기록하였다.

『The Diamond Mountains』의 두 번째 부분은 게일이 1917년 9월 21일부터 10월 22일 까지 금강산을 여행한 것을 날짜 별로 기록한 것으로, "Diary of Trip to the Diamond Mountains(Sept. to 21st, Oct. 22nd, 1917.)"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모두 31쪽 분량이다. 날짜 별로 그 날의 여정과 여행 중에 본 내용과 한 일, 만난 사람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은 25쪽에 걸쳐, 조선시대 금강산 여행기 3편을 영어로 번역하여 실고 있다. 3편의 여행기는 李蘊의 「1489년 금강산 여행기」(A Trip To The Diamond Mountains in 1489 A. D.),¹¹ 1603년에 李廷龜가 쓴 「금강산 여행기」(Journey To The Diamond Mountain),¹² 그리고 趙成夏의 「1865년 비로봉 방문기」(A Visit to Piro Pong in 1865)이다.¹³

한편 이 글을 쓴 제임스 스카스 게일(James Scarth Gale)은 캐나다 선교사로, 한국 이름은 奇一이다. 1912년 출판된 캐나다 인명사전은 그를 가리켜 "한국을 서양세계에 소개한 제 1인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일 뿐 아니라 훌륭한 언어 학자이자 뛰어난 저술가였다.¹⁴

그는 1863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엘로라(Elora)에서 태어났으며, 1888년 6월 토론토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대학에서 파견하는 YMCA 선교사로 임명되어 한국으로 왔다.¹⁵ 1888년 12월 한국에 도착한 게일은 서울을 거쳐, 이듬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황해도 해주로 갔다.¹⁶ 게일은 해수에 머무는 동안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평생 게일의 친구이자 한국어 선생 역할을 한 李昌植이라는 양반이었다. 이창직은 당시 23살이었으며, 특히 漢學에 조예가 깊어서 이후 게일이 1927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한국어 성서 번역과 한국학 연구에 커다란

¹¹ 이원의 「遊金剛錄」을 말한다. 「유금강록」은 이원의 문집인 再思堂逸集 에 수록되어 있으며, 게일이 1489년에 썼다고 기록한 것과 달리, 1493년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¹² 이정구의 「遊金剛山記」를 말한다. 「유금강산기」는 月沙集 에 수록되어 있다.

¹³ 조성하의 「金剛山記」를 말한다.

¹⁴ 유명익, 「게일(James Scarth Gale)의 생애와 그의 선교사업에 대한 연구」, 캐나다 연구 2, 1990, 135.

¹⁵ 김봉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의 韓國學 著述活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 1988, 138.

¹⁶ 유명익, 앞의 논문, 140.

도움을 주었다.” 다시 해주를 떠난 계일은 부산, 만주, 원산 등지로 지방순회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이해하게 되었다. 1892년에 계일은 미국 북장로교회로 교적을 옮기고, 1897년까지 원산에서 살면서 한글 성경 번역을 하였다. 그는 성서뿐만 아니라, 天路歷程 (The Pilgrim's Progress) 등을 번역 출판하고, 韓英辭典 (A Korean English Dictionary)을 편찬함으로써 우리나라 어문학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¹⁸

안식년을 맞아 1897년 미국으로 간 계일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1898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으며, 1900년에는 서울 연못골교회[蓮洞教會] 목사로 부임했다. 계일은 교육자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경신학교, 정신여고의 설립에 관여했으며, 평양신학교 교수로도 근무하였다. 그리고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Royal Asiatic Society, Korea Branch)의 간사로도 활약하였다. 계일은 1927년 한국을 떠났으며, 그 후 부인을 따라 영국으로 건너가 퍼스(Perth)에서 노년을 보내다가 1937년에 7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계일은 30여 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 앞에서 언급한 천로역정은 한국 최초의 서구문학 번역 작품이며, 韓英辭典은 당시로서 최대인 3만5천 단어를 수록하였다. 또한 춘향전, 구운몽과 같은 한국 소설을 영역, 출판하여 세계에 소개하였으며, 한국학 연구와 관련하여 여러 편의 저술을 남겼다.¹⁹

또 다른 분석대상인 朝鮮金剛山探勝記는 1918년 일본 도쿄의 洛陽堂인쇄소에서 출판된 단행본으로 맨 앞에 서문과 목차가 있고, 그 다음은 182쪽의 본문, 그 뒤에는 6쪽에 걸쳐 朝鮮鐵道局이 제시한 세 가지 안의 금강산 탐승 일정과 비용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저자인 기쿠치 유희는 서문에 “내가 조선 금강산을 跋涉한 것이 작년 6월이다. 일본에는 아직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이 세계적인 명산의 面影을 나의 붓으로 일부라도 전하는 일이 가능해 기쁘다.”라고 적었다.

본문은 먼저 25쪽에 걸쳐 “금강산은 어떤 산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쿠치 유희보다 23년

¹⁸ 김봉희, 앞의 논문, 139.

¹⁹ J. S. 계일(신복룡 역주),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7.

²⁰ 위의 책, 7.

²¹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1898년의 Korean Sketches, 1908년의 Korea in Transition, 1924년의 한국민족사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등을 꼽을 수 있다. Korean Sketches는 한국 입국 후 10년간의 한국의 인상을 수필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고, Korea in Transition은 당시 한국의 격변하는 상황과 선교활동, 한국인의 신앙생활 등을 서술한 책으로, 이 두 권의 책은 당시 한국 선교의 기본지식을 알려주는 서양 선교사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한국민족사는 東國通鑑 등을 자료로 쓴 한국역사에 대한 개론서이다.

빠른 1894년 금강산을 여행하였던 영국의 여성 지리학자 비숍(Isabella Bird Bishop)²¹ 등 서양인과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 등 일본 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여 금강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징과 그 가치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 다음 “叢石亭” 항목부터는 1917년 6월 6일 서울을 출발하여 원산을 거쳐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주요 경유지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조선금강산탐승기를 쓴 기쿠치 유히는 1870년 현재의 일본 이바라기켄[茨城県] 미토시[水戸市]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기쿠치 키요시(菊池清)이었으며, 1888년 茨城県尋常中學校를 졸업하고 소학교의 교사로 생활하다가 21살 때인 1891년 소학교를 사직하고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大阪毎日新聞社]에 입사하였다. 1892년에는 소설가로 데뷔하였고, 1897년에는 신문사의 문예부 주임이 되었으며, 1899년부터 신문에 소설을 연이어 연재하면서 소설가로서 명성을 높였다. 특히 ‘가정소설(家庭小説)’이라는 장르를 확립하여 제 1인자가 되었다. 그 후 기쿠치 유히는 신문사의 주요 보직을 거쳐 1924년에는 取締役, 1926년에는 相談役に 취임하였다. 그는 1947년 사망할 때까지 많은 소설을 남긴 소설가이자 신문기자였다.²²

4. 게일과 기쿠치 유히의 금강산 여행

앞서 살펴보았듯이 게일과 기쿠치 유히는 1917년 같은 해에 금강산을 여행하였다. 기쿠치 유히의 여행 시기는 6월로, 게일의 9월에 비해 3개월 정도 앞섰다. 게일의 여행기록 서두에는 아래와 같이 여행의 준비와 동반자에 대해 기록하였다.

우리는 금강산을 한 달 간 여행할 예정이었는데, 엄청난 여장을 꾸려야 했다. 침낭과 캔 식품 상자들, 그리고 옷과 냄비, 프라이팬, 주전자를 담은 바구니였다. 외국인은 동양인의 가벼운 행장과 비교했을 때 놀림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동양인들은 바지 한 벌과 바람이 잘 통하는 겹옷, 그리고 짚신을 신고 가볍고 쉬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는 칼라나 소매 같은 족쇄를 차지 않고도 자연이 준 그대로의 몸으로 가볍게 다닌다. 갓과 모자를 바람에 내던진 뒤 의연하게 날씨를 마주하면서 까맣고 풍부한 머릿결의 머리로 햇빛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운데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행을 비웃는다. 이 얼마

²¹ 기쿠치 유히는 금강산을 여행하고 그 아름다움을 저서를 통해 세계에 알린 비숍을 “금강산 최초의 탐험자”라고 칭하였다.

²² 일본 위키피디아 菊池幽芳 항목
(<https://ja.wikipedia.org/wiki/%E8%8F%8A%E6%B1%A0%E5%B9%BD%E8%8A%B3>)

나 자연과 가까운 모습인 것인가? 내 친구 이씨가 통역으로 함께 했다. 그는 마음이 맞는 친구이고 세월이 닳은 바위 위에 새겨진 글들을 Rhys Davids와²³ Sayces가 질투로 안색이 변할 정도로 좋은 솜씨를 발휘해 읽는다. 우리의 또 다른 도우미는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사람의 '조카'였다. 한국 발음보다 영어식 발음을 선호하는 내 아내는 그를 'the choker'라 부른다.²⁴

게일은 약 한 달간의 금강산 여행을 계획하고 짐을 꾸렸다. 그는 옷과 침구, 그리고 통조림 등 식품, 각종 취사도구를 챙기면서, 옷과 짚신만 준비하는 동양인의 가벼운 여행 준비물과 비교하였다. 그러나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금강산 여행에도 게일이 준비한 것 이상의 물품을 꼼꼼히 챙겼다. 게일이 서울을 출발할 때 동반한 사람은 부인, 친구 이씨, 그리고 서울 집을 지키는 사람의 조카 등이었다. 친구 이씨는 게일의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조력자 역할을 한 이창직으로 생각된다.

기쿠치 유희도 아래와 같이 서두에 간략하게 동반자와 준비물을 적고 있다. 총독부철도국에서 지원한 안내인만 동행한 혼자만의 여행이었고, 비상식량과 모자, 지팡이만 갖추어 게일에 비해 단출한 준비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기쿠치 유희는 특별한 준비물을 챙겼는데, 바로 카메라였다. 그의 기행문에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어떤 각도로 카메라에 담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으며, 마하연암에서 두 장의 모포를 뒤집어쓰고 사진건판을 교체한 일을 소개하고 있다.²⁵

내가 금강산 탐승을 위해 京城에서 원산으로 향한 것은 1917년 6월 6일 아침이다. 동행의 구보타 [窪田]군은 總督府鐵道局에서 나를 안내해준 사람으로, 전날 工務部에서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金剛杖을 준비해서 와주었다....원산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으로, 그날 밤 통조림, 얼음사탕, 모자 등 경성에서 준비해 온 물품을 챙겼다.²⁶

두 사람 모두 출발지는 서울이었으나, 금강산의 첫 목적지가 달랐으며, 이에 따라 금강산까지의 여정이 달랐다. 게일은 내금강 장안사를 목적지로 하여 1917년 9월 21일 경원선 기

²³ 영국의 불교학자인 토머스 윌리엄 리스 데이비즈(1843~1922, Thomas William Rhys Davids)를 말하는 것 같다. 데이비즈는 팔리어 불교경전을 로마자로 옮겨 출판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씨가 한문각자를 잘 읽는 것을 여기에 비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²⁴ J. S. GALE, 『The Diamond Mountains』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AS 13 (1922), 11-12.

²⁵ 菊池幽芳, 朝鮮金剛山探勝記, 洛陽堂, 1918, 135.

²⁶ 菊池幽芳, 위의 책, 26.

차를 타고 남대문역을²⁷ 출발하였다.²⁸ 제일 일행은 강원도 평강역에서 하차했으며, 우연히 역에서 오래 전에 알았던 박(Pak)이라는 친구를 만나 그의 도움으로 말 4마리를 빌렸다. 이 말들에 짐을 싣고 장안사를 향해 출발하였다. 말을 타고 평강을 출발한 일행은 김화를 거쳐 작은 일본식 여관에 묵었고, 둘째 날인 22일에는 금성을 거쳐 창투(Chang-too)라는²⁹ 작은 도시에 도착하여 숙박하였다. 23일은 비 때문에 창도에서 머물렀고, 24일 아침 말을 타고 창도를 출발하여 신안을³⁰ 거쳐 화천에³¹ 도착하여 은퇴한 군인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잤다. 25일에는 말휘리를 거쳐 드디어 금강산 장안사에 도착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일 일행은 서울에서 평강까지는 기차로, 평강에서 장안사까지의 270여 리는 말로 이동하였다. 평강에서 장안사까지는 매일 아침 8시에 출발하여 해질 무렵까지 움직였다. 결과적으로, 비가 와서 지체한 하루를 포함하여 4박5일이 걸린 셈이다. 서울~평강 구간에 기차를 이용하였다는 것이 오로지 말을 이용하였던 조선시대 여행자들과 달라진 점이다. 서울을 출발한 조선시대 여행자들은 내금강까지 가는 데는 보통 6~7일이 걸렸다. 비로 지체된 하루를 감안한다면, 제일 일행의 여정은 조선시대에 비해 3일 정도 단축된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여행자들이 역과 원, 주막 등을 숙박에 이용한 것에 비해, 제일 일행은 여관을 이용하였다. 20세기 초에 여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에는 역원과 주막을 대치하는 근대적인 숙박시설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기쿠치 유희는 외금강의 온정리가 첫 목적지였다. 그는 1917년 6월 6일 아침 역시 경원선을 이용해 서울을 출발하여 저녁에 원산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10시 원산항에서 기선 鏡城丸을 타고 중간에 叢石亭을 구경한 뒤 오후 4시에 장전항에 도착하여 외금강의 입구 역할을 한 온정리의 금강산호텔에 숙박하였다. 서울을 출발하여 1박2일 만에 금강산에 도착한 것이다.

금강산 내의 여정을 살펴보면, 제일 일행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9박20일을 금강산에 머물렀다. 금강산 내에서의 날짜 별 여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9월 30일까지는 장안사에 머물며, 내금강을 구경하였다. 주요 관람 장소는 표훈사, 명경대, 마의태자 성터, 영원암, 장경암, 관음암 등이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는 마하연에서 숙박하며, 만폭동, 보덕

²⁷ 남대문역은 당시 경원선의 출발역인 용산역으로 추정된다.

²⁸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도는 1914년 완공되었는데, 당시 금강산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였다.

²⁹ 조선시대 昌道驛이 있던 현재의 강원도 창도군 창도읍으로 추정된다.

³⁰ 조선시대 新安驛이 있던 곳으로, 현재 강원도 창도군 창도군 신안리이다.

³¹ 제일은 '華川'이라 표기하였으나 化川의 오기이다. 조선시대에는 회양 땅이었으며, 현재는 강원도 금강군 화천리이다.

암, 진주담, 묘길상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내금강과 외금강의 경계인 안무재를 넘어 외금강의 유점사로 이동한 뒤, 7일까지 유점사에 머물렀다. 10월 8일에는 유점사에서 盧樁의 전설이 내려오는 장항, 노춘정을 거쳐 신계사로 갔다. 계일은 신계사에 10월 14일까지 숙박하며, 금강문, 비룡폭포, 선담 등이 있는 구룡연 지역을 구경하고, 10월 15일 양진리를 거쳐 장전항으로 나가 금강산 여행을 마쳤다. 계일 일행은 장전항에서 산요호텔에서 숙박하고 해안을 따라 원산을 향한 뒤, 10월 22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9월 26일: 장안사-표훈사-장안사
9월 27일: 장안사-지옥문-명경대-마의태자 성터-영원암-장안사
9월 28일: 장안사-표훈사-삼불암-장안사
9월 29일: 장안사-장경암-관음암-장안사
9월 30일: 장안사-장경암-장안사
10월 1일: 장안사-청학봉-양사언 각자-만폭동-보덕암-화룡담-마하연
10월 2일: 마하연-진주담-마하연
10월 3일: 마하연-묘길상-마하연
10월 4일: 마하연
10월 5일: 마하연-묘길상-안무재-은선대-부도밭-유점사
10월 6일: 유점사
10월 7일: 유점사
10월 8일: 유점사-장항-노춘정-신계사
10월 9일: 신계사
10월 10일: 신계사
10월 11일: 신계사-금강문-옥룡관-비룡폭포-선담-신계사
10월 12일: 신계사-양진리-신계사
10월 13일: 신계사-보광사-신계사
10월 14일: 신계사-극락현-신계사
10월 15일: 신계사-양진리-장전항

기쿠치 유희의 금강산 내의 여정은 아래와 같이 8박9일이었다. 계일이 여행을 마친 외금강에서 여행을 시작한 기쿠치 유희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운영하는 온정리의 금강산호텔에 머물며 외금강의 신계사와 구룡연 지역을 구경하였다. 6월 9일에는 계일이 가지 않은 만물상 지역을 방문한 뒤 외금강과 내금강의 경계인 온정령을 넘어 신평리의 일본 미쓰이[三井]가 운영하는 텅스텐광산사무소에서 숙박하였다. 10일은 이동일로, 내금강의 입구인 말회리

를 통해 장안사에 도착하였으며, 장안사에서 숙박을 하면서 인근의 백천동, 명경대, 영원동, 수렴동, 망군대 등을 구경하였다. 12일에는 명연담, 삼불암, 표훈사, 정양사, 만폭동, 보덕굴, 백운대 등을 돌아보고 마하연에서 숙박하였다. 13일에는 묘길상을 보고 내금강과 외금강의 경계인 내재무령을³² 거쳐 외금강의 은선대, 구룡소 등을 구경하고 유점사에 숙박하였다. 14일도 이동일로, 유점사에서 개잔령을 거쳐 고성으로 나가 일본인이 운영하는 高城館이라는 여관에 투숙하였다. 15일에는 고성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해금강을 구경하고, 다시 삼일포를 본 뒤 온정리 호텔에 묵었다. 16일에는 원래 호텔에 머물며 휴식할 예정이었으나, 지방 사람의 권유로 동석곡에 다녀와서 심야에 장전항에서 배를 타고 원산으로 출발하였다. 기쿠치 유희는 원산에서 석왕사에 들러 2박한 뒤 서울로 돌아왔다.

6월 8일: 온정리-신계사-구룡연-비봉폭포-옥류동-구룡폭포-금강문-구룡대-온정리

6월 9일: 온정리-한하계-만상정-삼선암-귀면암-신만물상-옥녀봉-온정령-신평리

6월 10일: 신평리-말휘리-탑거리-장안사

6월 11일: 장안사-백천동-명경대-영원동-수렴동-망군대-영원암-장안사

6월 12일: 장안사-안양사-명연담-삼불암-표훈사-정양사-표훈사-만폭동-보덕굴-마하연암-만회암-백운대-마하연암

6월 13일: 마하연암-묘길상-내재무령-은선대-구룡소-선담-유점사

6월 14일: 유점사-개잔령-보현동-고성

6월 15일: 고성-적벽강-해금강-입석-동구암-해산정-고성-삼일포-온정리

6월 16일: 온정리-동석곡-장전항

이상과 같이 계일과 기쿠치 유희의 금강산 내 여정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계일은 자연 경치가 뛰어난 장소보다는 사찰과 전설이 남아 있는 문화유산 위주로 금강산을 구경하였다. 조선시대 여행자들이 반드시 찾았고 오래 머물며 경치를 즐겼던 내금강의 만폭동, 백천동 등지와, 외금강의 발연, 구룡연 등지를 스쳐 지나가거나 만나질 정도 구경하는 데 그쳤다. 특히 조선시대에 금강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장소로 널리 알려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망군대, 천일대, 불정대, 만경대 등은 들리지 않았다.

이에 비해 기쿠치 유희는 계일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일정이었지만, 계일보다 더 많은 곳을 구경하였으며, 조선시대 여행자들의 여정과 유사하였다. 계일이 가지 않은 만물상 지역과 해금강을 둘러보았으며, 계일이 오르지 않은 주요 조망장소에도 올라갔고, 유명한 계곡들을 빼놓지 않고 구경하였다. 계일을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유적 위주로 여유 있게 금

³² 계일은 안무재라고 표기하였다. 내무재령, 수점, 안문령이라고도 한다.

강산을 구경했다면, 기쿠치 유희는 효율적으로 이동하면서 자연경관을 구경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조망장소로 유명한 곳은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대부분 올라갔다. 기쿠치 유희는 매우 험준하여 사람들이 잘 방문하지 않는 신만물상을 간 이유를 “명산의 威靈을 접하고 자연의 경이를 맛보기 위함”이라고 기록하였다.³³ 대신 기쿠치 유희는 계일에 비해 금강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예를 들어 명경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였지만, 그 부근에 있는 계일이 기술한 마의태자성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두 사람의 여정의 특징은 금강산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의 여정의 차이는 개인적 성향의 차이에서 기인했지만, 안내자에서 비롯된 점도 있다. 계일은 친구 이씨가 동행하였을 뿐 별도의 안내인을 두지 않았으며, 사찰의 승려들의 도움을 일부 받았다. 승려들은 금강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식을 가진 이들이다. 이에 비해 기쿠치 유희는 금강산 관광개발을 주도했던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직원이 일정 내내 안내인으로 동반하였고, 이와 별도로 철도국 직원을 안내한 경험이 있는 19세의 한국인 안내인이 계속 수행을 하였다. 이들은 아무래도 역사와 문화보다는 경치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입구를 찾기 어려워 안내자가 꼭 필요하다고 기록한³⁴ 신만물상은 그 아래에 있는 萬相亭이라는 찻집의 일본인 주인의 안내를 받았다. 이와 같이 기쿠치 유희는 보다 전문적인 안내자들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곳을 효율적으로 구경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쿠치 유희의 여정도 금강산을 충분히 구경하기에는 짧았다. 그는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과 신금강지역을 탐험하지 못하여 아쉬워했는데, 이를 모두 보려면 적어도 15일은 필요하다고 일본의 고산 중에도 이런 산은 없다고 술회하였다.³⁵

계일과 기쿠치 유희의 1917년 금강산 여행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그것과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도 있다. 우선 금강산 내에 있는 절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여행을 하였다는 점은 조선시대 사람들과 같다. 계일과 기쿠치 유희가 숙박한 장안사, 마하연, 유점사는 조선시대에도 여행자들의 거점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계일의 아래의 기록과 같이 금강산 구경에 승려들의 도움을 받은 것도 조선시대와 공통적인 특징이다.

표훈사의 주지인 한은 서울 토박이로, 가장 친절하고 다정하게 인사하였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산으로 좀 더 올라가면 있는 정양사에 관해 말해주었다. 우리는 가파른 길을 올라야 했지만, 꼭

³³ 菊池幽芳, 앞의 책, 61.

³⁴ 菊池幽芳, 앞의 책, 62-63.

³⁵ 菊池幽芳, 앞의 책, 177.

대기에 올라 멀리 조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³⁶

아침을 먹은 뒤 우리는 보광사로 갔다. 주지가 칠성각에서 우리를 맞아 밥과 떡을 대접하였다. 그의 방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 부처가 그려진 두루마리가 인상적이었다.³⁷

우리는 우리의 행복한 집 장안사를 9시에 떠나며, 그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나온 주지의 배웅 인사를 받았다. 이씨와 일꾼들을 재워 주고 두 번의 추가 식사를 제공해준 것에 대해 4.70원을 지불했다. 나는 숙박비로 주지에게 4원을³⁸ 준 뒤, 명연으로³⁹ 향하는 계단의 아래쪽 끝에서 그에게 작별을 고했다.⁴⁰

정리하면, 사찰의 주지들이 게일 일행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으며, 금강산과 사찰에 대해 안내를 해주었다. 게일은 장안사를 "우리의 행복한 집"이라 표현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였다. 물론 숙박비와 식비는 위와 같이 지불하였다.

기쿠치 유희도 사찰을 숙박장소로 이용한 것은 비슷했지만, 오랫동안 한국에 살아와 한국 문화에 익숙했던 게일과는 달리 사찰에서의 숙박을 불편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더운 날씨로 산행에 많은 땀을 흘렸는데도 목욕시설이 없어 제대로 씻지 못했고, 사찰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는 장안사의 음식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지만 유점사에서 먹은 두부의 淸汁은 진미라고 평가하였다.⁴¹

금강산의 사찰의 식사는 한 끼에 20전으로 정해져 있으나, 장안사만 5전 비싸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별도로 숙박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식사비만 지급하면 숙박이 가능하다. 우리들은 절에 다소의 기부금을 냈기 때문에 잣과자와 꿀물을 제공받았다....저녁식사는 7-8개의 반찬이 나왔고, 밥은 커다란 사발에 고봉으로 담아 대식가라도 쉽게 다 먹지 못할 분량이었다. 반찬은 모두 어떤 냄새가 나고, 동시에 그 취급방법이 의심스러워 쉽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구보타군과 가시무라[柏村]군도 거의 절의 절의 반찬에 손을 대지 않고 통조림을 열어서 먹었다.⁴²

³⁶ J. S. GALE, *op. cit.*, 18.

³⁷ J. S. GALE, *op. cit.*, 40.

³⁸ 일제강점기의 화폐단위인 '圓'으로 추정된다.

³⁹ 'the Wailing Pool'이라고 되어 있는데, 울소, 즉 鳴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⁴⁰ J. S. GALE, *op. cit.*, 26-27.

⁴¹ 菊池幽芳, 앞의 책, 148.

⁴² 菊池幽芳, 앞의 책, 177.

조선시대 금강산 여행자들도 대개 아침 및 저녁식사는 절에서 해결하고, 점심 식사는 취사를 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취사는 승려나 동반한 종의 몫이었다. 게일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절에서 사먹거나, 준비해온 취사도구를 이용해 밥을 해먹은 것으로 보인다. 기쿠치 유희도 아침과 저녁식사는 절이나 호텔에서 했으나, 점심은 미리 숙소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다. 취사를 하지 않고 도시락을 먹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조선시대 금강산 유람에는 승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승려는 안내인 뿐 아니라 짐꾼, 가마꾼 등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17년의 두 사람의 여행에는 전문적인 일꾼을 고용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게일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올라가는 길에 우리의 뒤에서 짐꾼들이⁴³ 계속해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짐꾼들이 짐과 함께 아래로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안전하게 길을 통과하였고, 병과 잔도 전혀 깨지지 않았다. 그들은 1리에 2전을 받거나 전체 이동 기간에 40전을 받았다. 나는 그들에게 각각 40전의 팁을 줬지만 그들은 이에 대해 특별한 감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5일에 우리를 다시 데리고 유점사까지 안전하게 가 줄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 그들이 통상 일을 하던 방식에서 어긋나는 것 같았다. 만약 여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면 그들이 따라 왔을 것이다. 그러나 각 사찰마다 일꾼이 있었고, 우리는 여행을 하며 매번 이들을 새로 고용해야 한다.⁴⁴

오늘은 유점사로 떠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다. ... 짐을 들 네 명과 바위와 계곡 사이를 건너는 것을 도와줄 두 명을 포함한 여섯 명이 아침 일찍 오기로 했지만, 한국인답게 8시까지도 오지 않았다.⁴⁵

오후 5시 20분에 우리는 강하고 튼튼한 일꾼에게 얽혀 빠른 물살의 계곡을 건넜고, 안전하게 신계사에 도착했다.⁴⁶

즉 사찰마다 소속된 일꾼이 있어 구간마다 다른 일꾼을 고용하였으며, 이들은 짐을 나르고 계곡을 건너주는 역할도 하였다. 한편 기쿠치 유희는 고용한 일꾼에 대해 아래와 같이

⁴³ 게일은 일꾼을 모두 'coolie'라는 명칭으로 기록하였다.

⁴⁴ J. S. GALE, *op. cit.*, 27.

⁴⁵ J. S. GALE, *op. cit.*, 32.

⁴⁶ J. S. GALE, *op. cit.*, 37.

기록하고 있어 게일과 달랐다. 여행 내내 2명의 같은 일꾼이 동행하였으며, 일꾼 가운데는 일본인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부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짐구로서 모포, 의류, 식량 등을 운반할 인부 2명이 아침 일찍 왔다. 한 명은 연대장의 從卒을 작년까지 하다가 제대했다는 일본 젊은이이고, 다른 한 명은 작년 구보타군을 안내했다는 19세의 한국인이다. 우리 외에 호텔 사무원 가시무라군이 동행하게 되어 화물 3인분을 두 사람이 지게 되었다.⁴⁷

게일이 금강산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은 사찰의 승려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과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흥미로운 점은 도둑들과 이들을 체포하러 온 일본 경찰을 진주담에서 만난 것이다. 기쿠치 유희도 사찰의 승려들을 만났으나 이들과 별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현지의 일본인과의 접촉이 많았다.

5. 게일과 기쿠치 유희의 금강산에 대한 인식

게일과 기쿠치 유희의 기행문은 여정을 중심으로 한 사실적인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이 금강산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은 거의 없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남긴 금강산의 대한 언급을 인용한 부분과 자신들을 감정을 단편적으로 피력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들의 금강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인이나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게일과 기쿠치 유희의 금강산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은 금강산을 한국 최고의 명승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게일은 그의 기록 맨 앞부분에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글을 빌려 금강산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옛 임금들은 금강산에 감탄하였고, 승려들은 그 아름다움을 극찬하였으며, 성현들은 금강산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고, 화원들은 그 경치를 그렸지만, 그 누구도 금강산의 가치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다. 금강산은 과거엔 동아시아의 경이로움이었고, 이제는 점점 세계의 경이로움이 되어 가고 있다.⁴⁸

또한 이황과 권근의 글을 인용하여 금강산이 다른 어떤 것에도 비견될 수 없는 경이로운

⁴⁷ 菊池幽芳, 앞의 책, 57.

⁴⁸ J. S. GALE, *op. cit.*, 1.

창조물이며, 이 때문에 금강산을 구경하길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강조하였다.

기쿠치 유희는 금강산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동양 제일”, “天下의 奇勝” 등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여행 뒤의 자신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금강산의 발현은 완전히 천재적이다. 나는 금강산이 자연이 낳은 가장 기괴한 기형아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금강산에 가장 가까운 작은 모형을 찾는다면 야마케이[耶馬溪]를⁴⁹ 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100개의 야마케이로도 금강의 雄大怪奇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만큼 금강의 계곡은 웅장하고 복잡하며 숭고하고 신비하다. 이것을 세계적 명산으로 하는데 누구도 의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연봉의 높이로 볼 때 금강산은 고산이라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최고봉인 비로봉도 6,000척을 넘지 않으며, 다른 많은 봉우리는 4,000척~5,000척 사이에 불과하다. 금강이 명산인 것은 그 높이 때문이 아니다. 금강의 아름다움은 실로 그 기괴함이 극에 달한 岩石美에 있다.⁵⁰

즉 기쿠치 유희는 금강산이 높아서 명산이 아니라, 그 계곡의 아름다움 때문에 세계적 명산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계곡미는 암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나아가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화강암의 아름다움이며, 화강암을 빼고 금강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¹

이렇게 기쿠치 유희가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한 인상을 받은 데 비해, 계일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찰과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았다. 계일이 금강산의 무엇을 보았는가는 그의 금강산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이다. 그는 장안사, 표훈사, 영원암, 삼불암, 장경암, 관음암, 마하연, 보덕암, 유점사, 신계사 등 금강산의 주요 사찰을 빼놓지 않고 순례하였다. 사찰을 방문해서는 단순한 구경에 그치지 않고 승려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찰이 지닌 문화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계일이 금강산 여행을 집중적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로 삼은 것은 그가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금강산을 한국 불교의 요람, 또는 한국 불교의 성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계일의 이러한 인식은 금강산 여행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선시대 금강산 여행기 등을 통해 금강산과 사찰, 불교문화재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획득하고 여행을 통해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계일이 유점사에

⁴⁹ 오이타현[大分県] 나카쓰시[中津市]에 있는 계곡으로, 일본 3대 奇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新三景으로도 선정되었다.

⁵⁰ 菊池幽芳, 앞의 책, 7-8.

⁵¹ 菊池幽芳, 앞의 책, 16.

서 승려에게 금원의 기록에서 읽은 인목대비의 미타경을 보여 달라고 한 것이 그 증거이다.⁵² 이 때문에 계일은 금강산 여행 동안 주로 사찰을 방문하고 승려들을 만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계일은 불교 뿐 만 아니라, 금강산의 전설에 관심이 많았다. 인도에서 온 53불과 관련된 노춘의 전설을 여러 번 상기하며, 이 전설에서 유래한 지명들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구령, 노춘정, 니유암⁵³ 등이 그곳이다. 또한 마의태자와 관련된 장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절벽을 올라가면서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슬픈 장소를 지났다. 천 년 전인 918년 신라의 왕은 신라의 국운이 다하고 왕씨의 세상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 새 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다. 그의 아들은 자포자기해서 가족을 버리고 금강산에서 은둔하며 금강산의 원혼으로 남았다. 금강산에서 그는 지옥문과 황천강을 성벽 삼아 모든 세파로부터 벗어나 살았다. 나는 이 성벽에 담긴 이야기에 관해 들었지만, 천 년에 이르는 시간은 무너져 가는 성벽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잊게 만든다. 그것은 꿈에 불과한 것이었을까. 같은 돌들이 내 눈 앞에 있고, 낡은 성벽은 지난 수 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지난 사람들은 꺾어진 용사와 몰락한 왕국의 슬픈 기억을 불쌍하게 여기고 과거를 기리는 마음으로 낡은 성벽을 그대로 두었다. 그렇게 성벽은 잉글랜드의 알프레드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를 지키고 있다.⁵⁴

계일은 마의태자의 전설이 남아 있는 성벽을 잉글랜드의 알프레드 대왕의 성벽과 비교하며, 그 감회를 피력하였다. 계일이 이와 같이 금강산이 지닌 여러 전설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달아 놓은 것으로 보아, 그는 금강산을 전설의 보고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기쿠치 유희도 기행문에 금강산의 歷史美, 傳說美, 建築美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간략하게만 기록하고 있다.

⁵² 금원은 1830년에 14세의 어린 나이로 男裝을 하고 금강산을 유람한 金錦園(1817~?)이라는 여성을 말한다. 그녀는 錦鸞이라는 妓名을 가진 강원도 원주의 營妓였다가 후에 규당학사 金德喜의 소실이 되었다. 그녀는 14세의 나이에 남장을 하고 체천·단양 등을 거쳐 금강산과 관동팔경, 그리고 서울을 유람하였다. 그리고 김덕희의 소실이 된 이후에는 관서지방을 여행하였다. 1850년에 금원은 그 간의 유람 기록을 모아 湖東西洛記를 저술하였다. 계일은 이 책을 읽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는 인조의 비인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었을 때 미타경(Mita-Sutra)을 필사하였는데, 그것이 유점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⁵³ 계일의 기록에는 구령은 Dog Pass, 노춘정은 No Choon's well, 니유암은 Yi Yoo-am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⁵⁴ J. S. GALE, *op. cit.*, 20.

게일과 기쿠치 유희가 금강산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이 있는데, 바로 선인들이 남긴 題名이다. 제명이란 경치 좋은 장소에 자신의 이름이나 시를 쓰는 행위를 말하며, 대개 바위에 새기므로 刻字라고도 한다. 두 사람은 모두 제명에 대해 적지 않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 인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먼저 게일은 금강산에서 가장 유명한 각자인 楊士彦이 만폭동의 바위에 새긴 “蓬萊楓岳 元化洞天”이란 글씨를 구경하고 한국에서 돌에 새긴 것 중 가장 유명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가 이 각자가 지닌 가치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일은 양사언이 금강산과 관련된 인물 중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신선과 사람이 섞인 듯한 기이한 삶을 산 그에 대해 더 완전하게 알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또한 게일은 장안사 근처에서 李穀의 각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이곡은 고려시대에 금강산을 여행하고 東遊記 라는 기행문을 남겨 후대의 금강산 여행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리고 구룡폭포에서는 宋時烈이 남긴 각자를 찾아 살펴보았다. 게일이 이와 같이 양사언과 이곡, 그리고 송시열이라는 인물과, 그들과 금강산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재확인해주며, 그가 제명보다 인물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비해, 기쿠치 유희는 제명을 남긴 인물보다 제명 그 자체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는 먼저 구룡연 옥류동에서 화강암에 크게 조각된 제명을 발견하고, 결코 풍치를 해치지 않고 도리어 짙은 조선의 색채를 보여주고, 계류의 풍치에 재미있는 격조를 부여한다고 인식하였다.⁵⁵ 만폭동의 양사언의 제명과 만폭팔담의 이름을 바위에 새긴 것에 대해서도 멋지다고 생각하였으며, 절벽 위에까지 어떻게 글자를 새겼는지 궁금하게 여겼다.⁵⁶

게일과 기쿠치 유희의 또 다른 공통점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 금강산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게일은 금강산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면서 서양과의 비교를 즐겼다. 여행기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불교를 기독교와 비교하고, 금강산 여행을 영국의 순례여행에 비교한 것이 좋은 예이다.

기쿠치 유희도 금강산의 경치를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금강산과 야바케이를 비교하였는데, 금강산의 형승이 야바케이와 마찬가지로 풍화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야바케이가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달리, 금강산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눈에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고 멀리서 보면 환하고 눈부시며, 웅대호장한 산

⁵⁵ 菊池幽芳, 앞의 책, 41-42.

⁵⁶ 菊池幽芳, 앞의 책, 122-123.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거대한 화강암을 주로 한 금강산은 일본의 산수에 비해 놀랄 만큼 남성적이고 매우 위협적이라고 인식하였다.⁵⁷ 이렇게 기쿠치 유희는 과학적, 특히 지질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산들과 비교를 통해, 금강산의 특징을 인식하였다. 정리하면, 게일은 금강산의 역사와 문화, 기쿠치 유희는 금강산의 자연이라는 관심의 차이는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한국인보다는 객관적이고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금강산을 인식하였다.

불교, 그리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술 보다는 빈도와 양이 많지 않으나, 게일은 아래와 같이 금강산의 경치에 대해서도 묘사하였다.

장안사를 떠나 우리는 지장봉과 석가봉 사이에 있는 오른쪽 계곡으로 들어섰다. 잠시 우리는 물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사랑스러운 숲 속을 지났다. 절벽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때때로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도 내에는 출구를 전혀 남겨 놓지 않았다. 아래쪽은 살짝 황색을 띠는, 빛이 나는 맑은 냇물이 협곡을 따라 흘렀다. 거친 바람과 비에 의해 깎인 거대한 바위들은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이 계곡을 가장 위태로운 방법으로 건너고 또 건너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였다. 바위 사이로 7리그 가량의 틈을 건너 다녀야 했다. 이 바위들 역시 2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발자국으로 반짝 반짝 다듬어져 있었다. 44번이나 그렇게 바위를 건넌다고 생각해 보라! 자기 발을 조심하면서 미로 속을 헤매다가 때때로 멈춰 주변을 둘러보면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경치를 볼 수 있었다. 꿈의 세계, 신비의 세계로 가는 길 같았다.⁵⁸

가을의 색으로 단장한 단풍은 붉은색으로, 노란색으로 변해 산봉우리들의 성벽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한층 돋우면서 엄청난 장관을 선사하였다. 하늘을 수놓은 톱니 모양의 산등성이는 형언할 수 없는 침묵의 세계를 둘러싸고 있었다.⁵⁹

이 얼마나 경이로운 가을날인가! 지난밤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협곡 안에서 메아리치면서 산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밖을 내다보았는데, 달은 뜨지 않았고 짙은 어둠만이 바위와 절벽을 감싸고 있었다. 담무갈의 정령이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절벽 위에 앉아 있었다. 아침이 되자, 바람은 약해졌고, 엄청난 고요함이 흘렀다. 어둠이 기세를 잃고, 불교에서 태광이라 일컫는 빛이 세상을 새로 열었다. 밤의 추위가 단풍의 색을 더욱 깊게 만들어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졌다. 그 어떤 말로도 10월 초의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형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⁵⁷ 菊池幽芳, 앞의 책, 14-17.

⁵⁸ J. S. GALE, *op. cit.*, 19.

⁵⁹ J. S. GALE, *op. cit.*, 30.

이곳에 와서 자연이라는 수채화의 거장이 어떻게 산과 계곡을 물들이는지 확인하기를 바란다.⁶⁰

위의 기술로 볼 때, 계일이 인상적으로 인식한 금강산의 경치는 다양한 형태를 지닌 산봉우리, 바위와 물이 어우러진 계곡, 그리고 가을의 단풍 등이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좋아했던 금강산의 경관과 거의 유사하다. 금강산을 꿈의 세계, 신비의 세계로 인식한 것도 비슷한 점이다. 그렇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인식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가 드러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이러한 경관을 유교적 텍스트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산의 형상에서 유학자의 이미지를 발견하거나 어진 자의 속성을 깨달으려 하였고, 흐르는 물에서 철학적 이치를 이해하고 지혜로운 자의 속성을 찾으려 하였다. 즉 자신이 바라본 경치를 인간화하여 인식한 것이다. 이에 비해 계일은 보다 객관적으로 자연을 인식하였다. 금강산의 산과 물, 그리고 단풍의 풍광을 문학적으로 묘사하긴 했으나, 인간화하지는 않았다.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밤과 일출의 경관을 묘사하는 데 있어, 담무갈과⁶¹ 태광이라는 불교용어를 동원한 것이다. 계일의 불교에 대한 깊은 지식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다.

한편 기꾸치 유희가 금강산의 경치를 서술한 내용을 몇 대목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수렴동 계곡에는 꼭대기에서 떨어진 2丈 3尺 크기를 가진 모서리가 마멸된 거암이 겹쳐져 가로놓여 있고, 이것을 받치고 있는 지반도 유수의 削磨作用으로 거울과 같이 갈리고 닳인 화강암으로, 물은 장해물이 없는 한 그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흐르고, 구르는 돌에 막히면 급해지거나 혹은 그 아래로 숨어들며, 飛瀑이 되거나 深潭이 되어 물의 美觀을 구성한다. 그 위에는 항상 울창한 老樹를 가려져 있어 그 깊고 그윽함이 다분히 신비의 색채를 가미하고 있다. 또한 음습한 골짜기를 좋아하는 산목련이 물에 가까이 큰 순백의 꽃을 피워 골짜기에 그 향이 가득 차있다.⁶²

제 봉우리들은 마치 망군대를 꽃술로 하는 꽃부리와 같고, 우리 주위를 여러 겹의 원을 이루며 겹쳐 서 있어 놀랄 만한 雄偉莊嚴의 광경을 나타낸다. 그 하나를 가져도 이미 세상에 과시할 만한 이들 山骨을 노출한 奇峰이 괴이함을 다투고, 빼어남을 경쟁하고, 서로 이어져 연기와 같이 노도와 같이 허공에 연이어 있는 광경은 참으로 天下無比의 壯觀이라 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얼마나 작고,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적절하게 느꼈다.⁶³

⁶⁰ J. S. GALE, *op. cit.*, 31-32.

⁶¹曇無竭은 불교에서 금강산에 머물고 있다는 보살이다.

⁶²菊池幽芳, 앞의 책, 93-94.

⁶³菊池幽芳, 앞의 책, 104.

물의 아름다움은 금강의 모든 계류의 특색으로, 화강암에서 나오는 물이 가장 맑다는 지질학상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금강의 물은 청정하고 투철하여 어떤 깊은 담의 바닥까지 보이며, 영롱한 寶玉의 색을 채운 美觀은 추호도 水道瀘過池의 물의 아름다움과 다르지 않다. 또한 계곡에는 종종 모래와 자갈의 퇴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岩體의 분해로부터 생긴 흰색의 미려한 것으로, 적잖게 골짜기를 아름답게 하고 물을 아름답게 한다. 한 조각의 진흙도 볼 수 없는 금강의 계곡은 그 지질과 풍광이 상응하여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溪水美를 구성하고 있다. 금강에 있어 계수미의 으뜸을 차지하는 것으로 실로 이 만폭동을 추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골짜기가 웅대한 것, 수량이 가장 많은 것 때문이다. 골짜기가 넓기 때문에 靜寂幽玄의 극치인 영원동, 수렴동의 협곡에 비해서는 다소 깊숙하고 그윽한 정도가 떨어진다고 말할 것까지는 없다.⁶⁴

(내금강의) 이들 봉우리는 외금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칼을 세워놓은 듯한 수직선적인 산이 아니라 곡선적인 둥그스름한 거암이 누적되어 만들어 올린 단애 몇 개가 층층이 쌓여 있고, 또 수림이 여기에 밀생하기 때문에 내금강과 외금강 모두 기괴함이 극에 달하지만, 내금강의 선과 색채는 현저하게 완화되어 있다.⁶⁵

기꾸치 유희 역시 금강산의 경치를 극찬하고, 계곡과 맑은 물, 다양한 모양의 산봉우리 등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금강산을 인간세상과 거리를 둔 신비의 세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연을 인간화하여 인식한 조선시대의 사대부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자연을 인식하여 제일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금강산의 자연경관을 물에 의한 침식작용의 산물로 인식하였으며, 화강암이라는 지질조건이 계곡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바탕이라고 인식하였다. 그의 기행문에는 물과 새소리, 꽃향기 등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이나 후각으로 느낀 금강산에 대한 감상이 많다. 또한 기꾸치 유희는 여러 장소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영원동, 수렴동, 만폭동 등 계곡을 비교하였고, 망군대, 옥녀봉, 혈성루 등 전망장소의 경치를 비교하였으며, 외금강과 내금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금강산과 일본의 산들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기꾸치 유희의 금강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인식에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사를 쓰는 신문기자이자 상상력과 감성이 필요한 소설가이기도 했던 그의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금강산 계류의 물을 수도여과지의 물에 비유한 것이나, 외금강은 수직선으로, 내금강은 곡선으로 그 경관의 특징을 단순화시켜 인식한 것이 좋은 예이다.

⁶⁴ 菊池幽芳, 앞의 책, 118-119.

⁶⁵ 菊池幽芳, 앞의 책, 121.

6. 맺음말

이 연구는 1917년 금강산을 여행한 캐나다 선교사 게일과 일본인 신문기자 기쿠치 유히가 남긴 금강산 여행기를 분석하여 당시 외국인의 금강산 여행 과정을 살펴보고, 여행 후에 그들이 금강산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게일과 기쿠치 유히의 금강산 여행은 조선시대 한국인의 그것과 조금 달라진 양상을 보였다. 서울에서 금강산을 오가는 길의 교통수단이 달라졌으며, 여관이나 호텔 등 새로운 숙박 시설을 이용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사람들이 승려에게 크게 의존하여 여행을 한 데 비해, 이들은 일꾼이나 전문 안내자의 도움을 받았다. 금강산의 주요 사찰을 거점으로 삼아 여행을 하였고, 승려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공통적이었다. 게일과 기쿠치 유히의 여정의 큰 차이점은 주로 금강산의 무엇을 보았느냐하는 점으로, 게일은 사찰과 문화유산 위주, 기쿠치 유히는 자연경관 위주로 여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여정은 그들의 금강산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게일의 금강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먼저 그는 금강산을 한국 최고의 명승지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한국인들은 물론, 서양인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것이었다. 게일은 또한 금강산을 한국 불교의 요람 또는 성지, 그리고 전설의 보고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금강산 여행 이전부터 학습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믿어지며, 금강산 여행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게일의 금강산에 대한 인식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풍부하고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그의 평생 동료였던 이창직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기독교 목사였다는 점도 타종교인 불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 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한편 게일의 금강산의 자연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의 그것보다 객관적이고 실용적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한국을 기록한 서양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었다. 기쿠치 유히의 금강산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의 산들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최고의 명승지로 인식하였다. 그는 신문기자로써 익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에서 금강산의 자연경관 형성과정을 관찰하였고, 금강산 내에서의 비교 뿐 아니라, 일본의 산들과 비교를 통해 자연경관의 특징과 가치를 인식하였다.

참고문헌

- J. S. 게일(신복룡 역주),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 김봉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의 韓國學 著述活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 1988, 137-163.
- 김상민, *개화·일제기 한국 관련 서양 문헌에 나타난 한국 인식 양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민윤숙, 「금강산 유람의 통시적 고찰을 위한 시론- 불교적 성지순례, '수양'에서 '구경' 혹은 '관광'에 이르기까지」, *민속학연구* 27, 2010, 117-144.
- 박양신, 「19세기 말 일본의 조선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상」, *역사학보* 177, 2003, 105-130.
- 박지향,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이자벨라 버드 비숍과 조지 커즌의 동아시아 여행기』, *안과 밖* 10, 2001, 295-320.
- 심승구, 「조선시대 외국인 관광의 사례와 특성」, *역사민속학* 27, 2008, 33-62.
- 유영익, 「게일(James Scarth Gale)의 생애와 그의 선교사업에 대한 연구」, *캐나다 연구* 2, 1990, 135-142.
- 유홍준 편. *금강산*, 학고재, 1998.
- 윤소영, 「러일전쟁 전후 일본인의 조선여행기록물에 보이는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1, 2007, 49-93.
-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 정치영,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문화역사지리* 15(3), 2003, 17-34.
- 정치영,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4.
- 崔南善, 「金剛禮讚」, *六堂崔南善全集* 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편), 현암사, 1973, 153-256.
- 菊池幽芳, *朝鮮金剛山探勝記*, 洛陽堂, 1918.
- J. S. GALE. "The Diamond Mountains," *Transaction of 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y* 13, 1922, 1-67.
- Duncan, J. and Gregory, D.(ed.), *Writes of Passage: Reading travel writing*, Routledge,

1999.

Hulme, P. and Youngs, T.(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Travel Writing*, Cambridge Univ. Press, 2002.

Guelke, L. and Guelke, J. K., 2004, "Imperial eyes on South Africa: reassessing travel narratives,"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30, 11-31.